올여름, 시원한 '불교 미술 투어' 어때요?

우리네 미술관 · 박물관 속에는 불교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았을 불자들이 대다수지만, 미술관은 볼거리가 가득한 곳이다. 더운 여름 휴가를 고민한다면 가까운 미술관을 찾아가보는 것이 어떨까. 이번 호에는 불교색채가 강하게 느껴지는 색다른 전시전을 소개한다. 노덕현 기자

제주에서 맛보는 고승의 향취



사회복지법인 춘강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원장 조인석)에서 8월 24일까지 개최하는 고승 · 명인선서화전은 한국 불교사에 족적을 남긴 고승들과 현재 활동하는 스님들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전시회는 조인석 원장이 오랜 불연으로 소장하게 된 70여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서옹, 월하, 일붕, 중광 스님 등의 선필과 지선, 범진 스님 등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창봉 박동규, 라석 현민식 등 현재 서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서예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조인석 원장은 "오랫동안 소장해온 선필작품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공유하기 위해 전시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문화예술원을 설립 불교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시전과 함께 야생초 · 꽃차 시음회도 함께 열린다. (064)732-0295

디지털 기술로 돌아온 수월관음



약탈 및 도굴에 의해 해외 반출된 우리 문화재 16만 점 중 국보급 회화 작품 7점을 디지털로 복원한 전시 '디지털 귀향' 전도 눈길을 끈다. 서울디자인재단, 디지털 귀향 추진 시민모임, 사랑의 종신기부 운동본부는 8월 31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로비 특별 전시장에서 '디지털 귀향' 전을 개최한다.

여기서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디지털 고려 수월관음도. 전시장 한편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고려 수월관음도가 선명한 색상과 생생한 필치로 되살아났다. 스크린에 등장한 관세음보살의 옷자락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눈꺼풀이 슬쩍 움직인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디지털 귀향 추진 시민모임'과 '사랑의 종신기부 운동본부'는 "향후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디지털로 복원한 작품을 상설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국내에 만들어 국내에서도 언제든지 우리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2)2153-0000

현대 개념미술의 거장 김수자 展



불자 미술거장의 국내 전시전도 열린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내년 2월 5일까지 서울관에서 김수자 작가의 '마음의 기하학' 전을 개최한다. 김수자 작가는 백남준을 잇는 설치미술가로 이번 국내전시전은 4년 만이다. '마음의 기하학'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해 작품을 완성시키는 퍼포먼스 설치미술로 어두컴컴하고 서늘한 전시장에서 관객은 찰흙으로 덩어리를 만든다.

어두운 곳의 시각, 찰흙을 주무르는 촉감 등 관객들은 안이비설신의 작용을 고찰하게 된다.

개념미술로도 불리는 이 분야에 대해 김수자 작가는 불교의 '선'에 가깝다고 스스로 표현한다. 2009년 런던 국제불교영화제에서 김수자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무상에 관한 명상은 1980년대 초부터 늘 나와 함께했다. 특히 선불교는 내가 살면서 생각하고 기능하는 방식과 너무도 유사하다." (02)2188-6000

윤장섭의 마지막 성보를 보다



불교문화재 보존을 지원하고 이를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일에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故 호림 윤장섭. 이번 전시는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다. 호림박물관의 서울 신사동 분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근대회화의 거장들-서화(書畵)에서 그림으로'에서는 20세기 초 · 중반 한국 근대미술사 중 불교계 거장의 작품들을 볼 수 있다. 호림박물관은 그동안 도자기와 고문서 명품들을 주로 전시해왔다. 이번 전시는 근대회화를 소재로 열리는 첫 기획전이다.

전시는 '산수' '사군자' '인물' '화훼' 등 총 4개의 전시실로 이뤄졌다. 제1전시실 '산수-와유에서 풍경으로'는 지역별로 구획된 게 특징이다. '예술의 고향'이라 불리는 호남지역의 소치 허련의 그림과, 쉽게 볼 수 없었던 개성 및 평양 출신 화단의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전시는 10월 29일까지. (02)541-3523

三寶사찰 통도사 국제불교박람회 참여

한국을 대표하는 삼보사찰 중 한 곳인 양산 통도사가 한국 사찰 중 처음으로 해외 박람회에 참여한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사무국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불교박람회인 샤먼국제불사용품전람회에 참가할 14개 업체들이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참여를 결정지은 업체는 14곳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올해 주목되는 점은 삼보사찰 중 하나인 통도사의 참여다. 사찰이 해외 불교 관련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통도사가 이번 샤먼국제불사용품전람회에 참여를 결정한 것은 한국불교와 한국사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현재 중국인 불자들은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전통사찰의 겉만 살피는 형태의 관광이 주류를 이뤘다. 이에 최근 불자 유커(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불교의 진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의 형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무국 측은 "통도사의 샤먼국제불사용품전람회 참여는 이런 기존의 관행을 바꾸고자 하는 첫 발"이라고 평가하며 "통도사는 이번 박

10월 20~24일 中 샤먼서 개최
총 14개 업체 및 작가 참여키로
한국불교 홍보 · 中 불자 관심 기대

람회에서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리고 통도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의미를 전할 수 있는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역시 이번 박람회에 참여해 통도사와 함께 한국불교만의 색깔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번 박람회에서 3부스 규모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비롯해 한국불교의 문화콘텐츠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한국불교뿐 아니라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도 함께 알리게 된다.

한편, 샤먼국제불사용품전람회는 약 11만 5천㎡ 규모의 전시장에 6,30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되며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등 20개 국가에서 1,000여 업체가 참가한다. 매년 20~3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하루 평균 관람객 수 5만 명, 박람회 기간 전체 관람객 수 25만 명에 달한다. 올해는 10월 20~24일 샤먼 국제전람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2016년 샤먼국제불사용품전람회에 참가하는 한국관 부스 디자인 전경. 올해에는 사찰로서는 처음으로 통도사가 참여한다.

소아암 환우들 VR로 '문화재 탐험'을

國博 · 구글, 8월동안 서울대병원 대상 특별 수업

소아암 환우들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과 구글이 가상현실(VR)을 이용한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구글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학교 어린이 환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구글은 지난 2013년부터 세계 문화유산 온라인 전시 사이트 '구글 컬처럴 인스티튜트'(Google Cultural Institute)에서 주요 소장품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협력해왔다. 최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외관을 비롯해 불교조각실, 금속공예실, 청자실, 신라 시대의 황남대총 북부 금관과 허리띠 등 주요 전시실과 소장품을 스트리트뷰로 촬영해서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로 구현하기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를 활용해 '신나는 문화재 탐험'이라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지난 5월 11일 신안선 보물선 탐험 프로그램으로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학교 어린이들에게 시범수업을 진행했다.

8월 여름방학 특별활동 수업으로는 총 4회(3 · 10 · 17 · 24일) 진행할 예정이다. 수업은 구글 익스피디션(Google Expeditions)의 가상현실(VR) 기술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 체험활동이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됐다.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앞으로도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학교의 소아암 · 백혈병 환아와 장기입원 어린이들에게 구글이 가진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박물관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